

오순절 후 여덟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8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2년 7월 31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75장 “주여 우리 무리를” (통일47)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31 번 시편 68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권영수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출애굽기(Exodus) 11:1-10	고지현 집사
찬 양 Anthem	“임하소서”	찬양대
설 교 Sermon	“재앙을 내린 후에야” (One More Plague)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주만 바라볼찌라”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322 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통일357)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광야와도 같이 메마른 우리의 인생 길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셨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마주하는 환경에 더 많이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이 없다고 자주 불평했고,

끝없이 애굽을 동경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여전히 죄의 유혹 앞에서 힘 없이 무너지고,

세상의 기쁨과 그릇된 욕망을 좇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여,

이제부터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롬 6:6, 롬 6:11)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개역개정 **출11:1**)

“Now the LORD had said to Moses, I will bring one more plague on Pharaoh and on Egypt. After that, he will let you go from here, and when he does, he will drive you out completely.” (NIV **Exodus 11:1**)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7/31 (주일)	8/1 (월)	8/2 (화)	8/3 (수)	8/4 (목)	8/5 (금)	8/6 (토)
본문	삿14 행18 렘27 막13	삿15 행19 렘28 막14	삿16 행20 렘29 막15	삿17 행21 렘30,31 막16	삿18 행22 렘32 시1,2	삿19 행23 렘33 시3,4	삿20 행24 렘34 시5,6

수/요/ 찬/양/집/회 특별/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8/3수 오후7:30)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룻4:7-17)
특별 새벽기도회(8/6토 오전6:30)	“하나님과 동행하더니”(창5:21-25)

지난 주일(7/24) 말씀 – 손 순 목사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요 14:25-27)

누구에게나 안내자가 필요하고, 상담자가 필요하며, 또한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가리켜, 우리를 보호하여 돕는 스승이요, 안내자요, 상담자요, 위로자요, 권면자요, 응원자라는 뜻의 ‘보혜사’(요14:1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보혜사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셨던 것일까요?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야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혼동하기도 하고, (또한)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은사를 혼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신앙 생활 영위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전3:16)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실까요? 1)첫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14:26상), 2)둘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요14:26하), 3)셋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고(요14:27), 4)넷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시어,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과 은혜를 주시며, 죄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